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아!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아! 그런 것으로구나' 마무리한 강의입니다.

강의를 처음 들으면서 잘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듣기보다는 상대방이 내말을 듣기를 원할 때가 더 많은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시작했다.

그래서 좀더 귀를 기울여보려고 했다.

내가 강의를 통하여 공감되는 요소가 5가지였다.

1) 듣는 것의 유익은 학습시 경험한다.

'경청하는 학생이 잘 필기하는 학생보다 성적이 좋다.

강한 학습의욕이 있는 학생은 잘 듣는다.' 는 이야기가 맞는것 같다.

2) 듣는 것도 심도를 달리 할수 있다.

'귀를 기울이는자. Listen과 Motivation은 밀접하다'

이들은 상상력의 확대와도 밀접하다

예시로 설명한 라디오프로그램에서 '네가지 소리를 듣고 스토리를 만들어 내기'는 정말 눈으로 고정된 세계를 탈피하여 상상의 세계의 확대에 매우 좋은 도구인것 같다.

3) 긍정의 세계관

우리 말에 '약이 듣는다'는 것은 치료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이다. -> '듣다'에는 긍정의 세계관이 숨어 있다

나는 얼마나 듣기 지향의 인간인가?

반대로 '뭔가가 제대로 안돌아간다. 도구가 말을 잘 안듣는다.'는 말이 있다.

결국 듣는다는 열린 포용성. 선 순환적 주체가 된다.

4) 인성적 요소

"아버지는 자상한 분이셨어요, 꾸중할 것이 있으면 언성을 높이는 대신에 종이에 쓴 메모를 주셨어요"

일단 화를내며 소리치기 쉽지만 절제된 카리스마가 어떤것인지 상상이 가는 한 구절이었다

5) 내가 나를 듣는 경지

이것은 내가 나를 듣는 일은 지혜를 찾는 길이다.

강의를 듣고 나서 구약성경 시편 19편의 말씀을 찾아 보았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

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말씀과 소리와 듣는것 지혜를 찾는 길이 무엇인지 열어주는 좋은 강의였다.

2023. 12. 05 (화) 장은상